

NEWSIS

[연평도 피격]누리꾼, 전사한 두 장병 '애도'...전쟁은 '경계'

입력 2010.11.23. 오후 10:27 수정 2010.11.23. 오후 10:28



【서울=뉴시스】박성환 기자 = 23일 북한의 해안포 포격으로 전사한 해병대 장병 서정우(21)병장과 문광옥(19) 이병에 대한 추모의 글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.

누리꾼들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포털사이트에 관련 기사에 수천개의 댓글을 달고 고인들을 추도했다

또 전사한 장병들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직접 애통한 마음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.

누리꾼 '하늘아래'는 "사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랐는데 결국 두 장병이 사망했다"며 "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"고 애도했다.

또 다른 누리꾼 'wjdal1919'는 "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"며 "아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"며 안타까움을 전했다.

누리꾼 'pkki09' "더 이상의 북한 도발이 없어야 한다"며 "안타깝게 희생된 두 장병에 대해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"고 전했다.

누리꾼중 일부는 이번 사태가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.

서 병장의 미니홈피를 직접 방문한 누리꾼 최준호씨는 "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"며 "이번 사태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"고 주문했다.

또 다른 누리꾼 "tjdwns"은 "조국을 수호하다 순직한 두 해병의 명복을 빌겠다"며 "상황이 악화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큰 일"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.

sky0322@newsis.com

[뉴스스 이시간 핫 뉴스]

- [연평도 피격][표]전사자 및 중·경상자 명단
- YS 또 친자확인소송 피소
- 60년대 美성혁명 부른 세대, 지금은 성적으로 가장 불행
- 뉴라이프론, 서민대출시장의 대안 될까
- 처 출산 간병중 산부인과 여직원 성폭행 정신 나간 30대 영장
- 캄보디아 압사사고... 339명 사망
- [연평도 피격]"北 포격, 호국훈련과 관련없어"
- 英법원, 1000억 로또 당첨자에 "바람난 전 부인에 36억 지급" 판결

★ 손 안에서 보는 세상, 모바일 뉴스스

<저작권자© '한국언론 뉴스허브' 뉴시스통신사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.>

Copyright © 뉴시스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이기사주소 <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03552592>
